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1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신규 상장 ETF(9/1)

-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한국, 미국, 일본의 낸드 플래시 및 낸드 기반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시가 처리하는 데이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낸드 산업에 집중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AI의 중심축이 학습에서 추론(Inference)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용 SSD 수요 확대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ioxia, SanDisk, Micron 등 소수의 핵심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상위 5개사가 약 90%)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한국, 미국,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NAND Flash, 3D NAND, Flash Memory, NAND Controller, SSD, HDD 등 낸드 플래시 및 스토리지 솔루션 관련 키워드를 반영하여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의 정량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가운데 키워드 스코어가 높은 상위 10개 종목을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은 키워드 스코어 상위 4개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17.5%씩 총 70%를 할당하고, 나머지 6개 기업들은 30%의 비중에 대하여 10%의 Cap Rate으로 상한을 제한하면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다.

상장일(9/1) 기준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anDisk, Kioxia Holdings, Micron, Lam Research, Seagate Technology, Western Digital, Marvell Technology, Tokyo Electron의 10개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과 12월의 한국 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0.45%의 총 보수가 반영되는 패시브 ETF이다.

도표 1.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ETF의 종목 개요

ETF명	RISE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
상장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기초지수	iSelect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45%
구성종목 수	10종목
비중결정방식	- 상위 4종목(70%): 키워드 스코어 기준 동일가중 배분 (각 17.5%) - 하위 6종목(30%): 시가총액 가중 배분 (개별 종목 비중 10% 상한)
정기변경	연 2회 (매 6월, 12월 한국 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